



비대면·온택트의 일상 창조도시 성남이 앞장서겠습니다!

표준 대량 집적의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은 IT 온라인 모바일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도 이에 따라 바뀌어 가야겠죠.
창조도시 성남은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온택트 혁신행정으로
새 시대를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SEPTEMBER
Vol.302 09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02호 2020년 8월 25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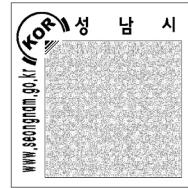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seongnamdiary.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㉑ 서정림 공연연출가

동서양 생각의 차이를 탐색하는 지적 여정 『생각의 지도』

인간과 세상을 넘나드는 통찰로 시각 재구성



어떤 공간에 들어가 발을 디디면 발소리가 울려 금방 돌아오는 공간도 있고,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울려 퍼지는 공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지금의 말을 꺼낸 건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 그 사람의 경험의 세계가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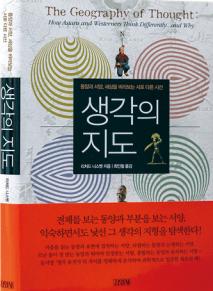
나체가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 부른 이유도, 나체의 그 말이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폭발을 일으켰던 것도, 그 공간이 너무나 광활해 감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닌 공간의 깊이, 이는 곧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다른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V 화면이 고작 2개의 전구(혹은 픽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화면이 나무를 비주더라도 흑갈색 점 위에 초록색 점으로 읽힐 뿐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픽셀을 가진 시야로 나무를 보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것이 떡갈나무이며 울렁거리는 잎사귀가 참 예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듯 삶의 해상도라는 것은 살면서 당연하게 일 반화해버릴 수 있는 생각을 더 쪼개고 쪼개어 같아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분명히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知的) 해체’의 과정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무척 흥미 진진하게 읽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전 예일대 심리학과, 현 미시간대 심리학과 교수인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는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첫 장을 넘길 때에는 ‘서양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동양인으로서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저음,
김영사 펴냄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BOOK
RELAY
21

- ①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② 노희지 보육교사 『언어의 온도』
- ③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 ④ 이성실 사회복지사 『당신이 옳다』
-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 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풀들의 전략』
- ⑦ 구지현 만화가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 ⑧ 이무영 영화감독 『더 로드(The Road)』
- ⑨ 김의경 소설가 『감정노동』
- ⑩ ‘비복스’ 김성대 대표 『단순한 진심』
- ⑪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김윤환
『포노 사피엔스』
- ⑫ 김현순(구미동) 『샘에게 보내는 편지』
- ⑬ 주부 유재신 님 『정원가의 열두 달』
- ⑭ 황찬욱 학원장 『위험한 과학책』
- ⑮ 한영준 송립고 교장 『라틴어수업』
- ⑯ 성남교육지원청 이동배 장학사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 ⑰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죽음의 수용소에서』
- ⑱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
『가재가 노래하는 곳』
- ⑲ 홍의택 가천대학교 교수
『명묵(明默)의 건축』
- ⑳ 김진업 한국미술평론가협회회장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 ㉑ 서정림 공연연출가
『생각의 지도』
- ㉒ 최장섭 변호사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나의 사고방식, 즉 ‘인간이라면 모두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하나하나 부수어 가는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하거나 또는 어이없게 여겼던 내 삶의 픽셀들이 더 잘게 쪼개지며, 기억에도 없는 나의 유전자를 유추하게 했고, 세계의 현상을 보다 선명하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깊은 비단 그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성찰을 얻어가는 과정이 무척 쉽고 흥미롭게 쓰인 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동방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책의 영감을 얻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아가 자연을 이용한 광고가 동양에서 더 효과적인 이유, 동양에서는 침술이 발전하고 서양에서는 수술이 발전한 이유, 같은 법이 동양과 서양에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과학, 교육, 인권 문제 등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정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중한 통찰의 경험을 얻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 책의 묘미는 그러한 통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의 끝부분에는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동서양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리처드 니스벳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최소한 몇 만 년을 상정하는 진화적인 시간관에서, 왜 동서양이 이렇게 다르게 사고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묘미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책을 끝냈음에도 한동안은 잠자리에 눌거나 길에서 한적하게 걸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사고하게 됐는가’에 대한 상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상은 잠깐의 휴식 시간에 생각해볼 생각의 장난감이자, 잠들기 전 라디오처럼 틀어 놓을 자장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는 점차 인간의 사고, 언어 등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AI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모르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AI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처리하지만 인간은 떡갈나무를 몰라도 나무라고, 또는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이는 AI와 달리 인간은 무의식적 사고, 문화에 의해 누적된 집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합니다.

이 책은 AI의 마지막 과제가 될,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과 그 어딘가에서 만나, AI와는 나누지 못할 이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최장섭 변호사님께 독서릴레이 10월 주자의 기회와 함께 선물합니다.



“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 중단” 성남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고위험시설 1,538곳 집합금지, 위반 시 치료비 전액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성남시는 8월 19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실내 공공시설 198곳에 대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12종 1,538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잇따르자 8월 18일 오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작은도서관 140곳(대출·반납은 가능), 생태학습원 2곳, 판교박물관, 책테마파크, 아트센터, 이동노동자쉼터, 공공예술창작소 2곳, 경로당 15곳, 아이사랑놀이터 14곳 등 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을 중단했다. 유흥주점 314곳, 노래연습장 571곳, PC방 334곳, 뷔페 33곳, 대형학원 32곳, 콜라텍 4곳, 실내집단운동 53곳, 헌팅포차 1곳 등 고위험시설 12종 총 1,538곳 역시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과 행사 또한 금지한다. 다만 실외 공공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복지 관련 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 내 긴급돌봄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방역방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확진 확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당국 지침이나 집회금지령 등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과 별개로 치료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내용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권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공공)	운영 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다중시설(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기관·기업(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력 제한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기관·기업(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 위기가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재산기준(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확대운영 2020. 12. 31까지)

- (소득) 기준 75% 이하

가구규모(원/월)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7인 가구 5,542,286원

- (재산) 1억6천만 원 → 2억 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65% → 150%)

종류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횟수(지원기간)
위기상황 주급여(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월 454,900~1,230,000원(1~4인 기준)	6회
위기상황 주급여(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000원 이내(회)	2회
위기상황 주급여(주거)	국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22,900원 이내(중소도시, 4인 기준)	12회
위기상황 주급여(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00원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분기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4회)
부가 급여(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월,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연료비 6회)	1회 (연료비 6회)

* 신청접수(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사회복지과(회원복지팀)

2020년 8월 19일 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 ▶ 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 중단
- ▶ 고위험시설 12종 1538곳 집합금지



01. 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 중단

공공·작은도서관 140곳(대출, 반납 가능), 생태학습원 2곳, 판교박물관, 책테마파크, 아트센터, 이동노동자쉼터, 공공예술창작소 2곳, 경로당 15곳, 아이사랑놀이터 14곳 등

* 실외 공공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제한적으로 운영.

복지관련 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 내 긴급돌봄 프로그램 그대로 실시

02. 고위험시설 12종 총 1538곳 운영 금지

유형주점 314곳, 노래연습장 571곳, PC방 334곳, 뷔페 33곳, 대형학원 32곳, 콜라텍 4곳, 실내집단운동 시설 53곳, 헌팅포차 1곳 등 고위험 시설 12종

03.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그 외 모임·활동 금지)

| 국민 행동 지침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밀집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체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텔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9월 독서의 달, 책과 함께 놀아요!

책 읽는 도시 성남은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도서관별 행사를 모아봤다.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중앙도서관

T 031-729-4634~5 H <https://www.snlib.go.kr/ct>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사전 행사	'책 한권해' 로고송 챌린지	8. 7(금) ~	유튜브 (성남TV)	성남시민	http://www.youtube.com/watch?v=07A-FRUO34s
북큐레이션	인생 영화관	9. 1(화) ~ 9. 30(수)	1층 로비	성남시민	자유관람
	엄마라는 이름	9. 1(화) ~ 9. 30(수)			자유관람
원화 전시	세밀화 '큰 도감 강'	9. 1(화) ~ 9. 30(수)	1층 로비	성남시민	자유관람
	환경 그림책	9. 1(화) ~ 9. 30(수)			자유관람
온라인 강의	again '인생철벽방어' 미래 나의 국민연금	9. 17(목) 19:00~20:00	비대면 온라인 (Zoom)	성남시민 (100명)	온라인 접수 9. 1(화) 10:00~

해오름도서관

T 031-729-8774, 8778 H <https://www.snlib.go.kr/hor>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전시	<지붕 위 루시> 아트 프린트 전시	9. 1(화) ~ 9. 29(화)	로비(1층)	누구나	자유관람
저자 특강	<두더지의 소원> 김상근 작가와의 만남	9. 19(토) 10:00~11:00	온라인 (실시간 강의)	초등 3~4(10명)	9. 9(수) 10:00~
체험 강좌	- 한 권의 책 만들기 - 현직 작가이자 편집자에게 글쓰기와 편집기법을 배우고 나만의 실물 책 한 권 완성하기	9. 4(금) ~ 9. 25(금) 10:00~12:00 ※ 매주 금(4회)	온라인 (실시간 강의)	성인(20명)	8. 20(목) 10:00~ ※ 재료비 : 2만 원 이내
행사	잡지 골라 테이크 아웃 - 과월호 잡지 무료교부 행사	9. 17(목) ~ 소진시까지 10:00~18:00	로비(1층)	누구나	현장참여

중원어린이도서관

T 031-729-4353 H <http://www.snlib.go.kr/cjw>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전시	원화전시(온라인 전시) <곤충의 몸무게를 재볼까?>	9. 1(화) ~ 9. 24(목)	도서관 홈페이지	누구나	자유관람
단기 강좌	경제야 놀자(용돈교육)	9. 1(화) ~ 9. 2(수) 15:30~17:00	온라인 (실시간 강의)	초등 1~2(8명)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8. 24(월) 10:00~
	경제야 놀자(용돈이 뭐지?)	9. 3(목) ~ 9. 4(금) 16:00~17:30		초등 3~6(8명)	
	창의공예 클레이아트 <연필꽃이 만들기>	9. 5(토) 10:30~12:00		유아 6~7세 (10명)	
	곤충컨설턴트(직업체험)	9. 8(화) 14:30~16:00		초등 5~6(6명)	
	재미랑 공예랑 (디풀블럭으로 저울통 만들기)	9. 12(토) 10:30~12:00		초등 1~3(10명)	
	조선을 습격한 역병에 맞서다	9. 18(금) 15:00~16:30		초등 3~6(8명)	

판교도서관

T 031-729-4584 H <https://www.snlib.go.kr/pg>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온라인 단기 강좌	도서관에서 함께 맞는 추석 A	9. 21(월) 16:00~17:00	비대면 (Zoom 플랫폼)	5~7세	온라인 선착순 접수 8. 31(월) 10:00~	
	도서관에서 함께 맞는 추석 B	9. 21(월) 17:00~18:00				
	영어 스토리텔링 맛보기 A	9. 22(화) 16:00~17:00		4~5세 (부모 동반 참여)		
	영어 스토리텔링 맛보기 B	9. 22(화) 17:00~18:00				
	가을에 만나는 고전 <페스트>	9. 23(수) 10:00~12:00		성남시민		
	나만의 다육 정원 꾸미기 A	9. 24(목) 16:00~17:00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나만의 다육 정원 꾸미기 B	9. 24(목) 17:00~18:00				

분당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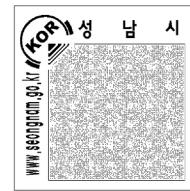
T 031-729-4663 H <https://www.snlib.go.kr/bd>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단기 강좌	원화전시 <빙하가 사라진 내일>	9. 1(화) ~ 9. 25(금)	1층 로비	누구나	자유관람	
	똑똑똑똑! 나도 건축가! A	9. 6(일) 10:00 ~ 11:30				
	똑똑똑똑! 나도 건축가! B	9. 13(일) 10:00 ~ 11:30				
	특명! 역사적 사실을 찾아라! A	9. 6(일) 13:30 ~ 15:00		초등 3~6 (각 8명)		
	특명! 역사적 사실을 찾아라! B	9. 13(일) 13:30 ~ 15:00				
	도전! 그림책 캐릭터 만들기 A	9. 11(금) 14:00 ~ 15:30		초등 1~3 (각 8명)		
	도전! 그림책 캐릭터 만들기 B	9. 18(금) 14:00 ~ 15:30				

위례도서관

T 031-729-8953 H <https://snlib.go.kr/wr>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저자 특강	말하기 독서법 (저자 : 김소영)	9. 18(금) 10:00~12:00	온라인	성인(15명)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9. 7(토) 10:00~
전시	그림책 원화전시 <L부인과의 인터뷰>	9. 4(금) ~ 9. 20(일)	어린이가족 열람실	누구나	자유관람
	책 읽어주기 가이드 (1·2차시)	1차시 : 9. 2(수) 10:00~11:30			
		2차시 : 9. 3(목) 10:00~11:30			
단기 강좌	책과 함께하는 마크라메	9. 12(토) 10:00~12:00	온라인	성인(10명)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8. 31(월) 10:00~
	내 책상 위로 온(On) 정원 : 테라리움	9. 19(토) 10:00~12:00	온라인	초등 1~3(10명)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9. 7(월) 09:00~



복정도서관		031-729-8713 https://www.snlib.go.kr/bj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전시	원화전시 <오소리네 꽃밭>	9. 1(화) ~ 9. 29(화) 09:00~18:00	도서관 1층 유아자료실	성남시민	자유관람
	온라인 전시 (윤원보 작가)	9. 1(화) ~ 9. 29(화) 09:00~18:00	홈페이지 게시판	성남시민	자유관람
강연	송귀예 저자강연 (나를 이해하는 용기, 마음공부)	9. 17(목) 10:30~12:30	온라인 실시간 줌(Zoom)	성인 (25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8. 26(수) 11:00~

중원도서관		031-752-3913 https://www.snlib.go.kr/jw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행사	밖으로 나온 도서관 <가족백일장 및 독후감상화대회>	9. 11(금)~9. 20(일)	밖으로 나온 도서관 웹사이트	성남시민	9. 11(금) ~9. 20(일) https://sjjwsnlib.modoo.at
공연	우주 퍼포먼스 쇼	9. 26(토) 11:00~12:00	유튜브 생중계	성남시민 (50가족)	9. 15(화) 10:00~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작가 강연	권기봉 작가의 지역 역사문화 이야기	9. 26(토) 14:00~16:00	줌(Zoom) 온라인	성남시민 (중학생 이상 성인 20명)	9. 10(목) 10:00~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특강	어린이 역사특강 <세계문화유산>	9. 21(월), 9. 28(월) 15:30~17:30	줌(Zoom) 온라인	초등 3~4 (10명)	9. 10(목) 10:00~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서현도서관		031-729-8706 https://www.snlib.go.kr/sh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전시	세밀화로 보는 <꽃과 나비>	9. 1(화) ~ 9. 29(화)	2층 복도 및 어린이자료실	성남시민	자유관람
	<궁금해? 전염병의 역사!>	9. 13(일), 9. 20(일) 10:30~12:30	온라인 (Zoom)	초등 4~5(10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8. 31(월) 10:00~
강좌	<그림책으로 마음산책>	9. 13(일), 9. 20(일) 14:00~16:00		성남시민(10명)	

논골도서관		031-729-4436 https://www.snlib.go.kr/ng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단기 강좌	비누 만들기	9. 12(토) 10:00~12:00 9. 19(토) 10:00~12:00	온라인 비대면	초등 1~3(6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8. 25(화) ~ 9. 2(수) 18:00
	성인을 위한 가죽공예	9. 22(화), 9. 23(수) 14:00~16:00 9. 24(목), 9. 25(금) 10:00~12:00			

구미도서관		031-729-4693 https://www.snlib.go.kr/gm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
강연	[마티네 북콘서트] 인문적 향기로 도달하는 존재의 심연(최민자 작가)	9. 12(토) 14:00~15:00	Zoom (온라인 강의)	성인 20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9. 1(화) 10:00~
	[마티네 북콘서트] 내 인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조현 작가)	9. 26(토) 14:00~15:00	Zoom (온라인 강의)	성인 20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9. 14(월) 10:00~
전시	[북큐레이션] 오페라세대, 활기찬 인생을 다채롭게 살아가는 신중년층	9. 1(화) ~ 9. 13(일)	2문헌정보실 (3층)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북큐레이션] 인문학으로 시작해 보는, 은퇴 후 인생 이모작	9. 14(월) ~ 9. 29(화)	2문헌정보실 (3층)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체험 강좌	[원화전시] <궁디팡팡>	9. 1(화) ~ 9. 29(화)	로비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책 보따리, 놀이 보따리 A반	9. 19(토) 14:00~14:40	Zoom (온라인 강의)	초등 1~2 (A·B반 각 4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8. 24(월) 10:00~
	B반	9. 19(토) 15:00~15:40			
	Real friends True friendship (진정한 우정)	9. 19(토) 10:00~10:40	Zoom (온라인 강의)	초등 3(4명)	
	B반	9. 19(토) 11:00~11:40		초등 4(4명)	
	The four seasons (사계절)	9. 19(토) 14:00~14:40	Zoom (온라인 강의)	초등 1~2 (A·B반 각 4명)	
	B반	9. 19(토) 15:00~15:40			

2020분당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강생 모집

코로나 블루, 나를 위로하는 인문학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2020년.
몸도 마음도 지친 일상에서 예술 인문학으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운영기간 2020. 9. 7. ~ 10. 13. 장소 분당도서관 시청각실 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수강료 무료

<음악의 위로>

차시	일시	주제 <주제도서>
1강	9월 7일(월) 19:00~21:00	위기의 순간 나를 위로해 주는 클래식 <벤지 클래식한 사람 / 김드리 저 / 웨일북>
관람	9월 11일(금) 19:00~21:00	렉처 콘서트 1부 성남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 2부 성지승의 <첼로와 함께 하는 음악 여행>
2강	9월 14일(월) 19:00~21:00	미국의 경제 위기에 빛을 밝힌 재즈의 특별한 이야기 <당신과 하루카와 음악 / 백영옥 외 / 그책>
3강	9월 18일(금) 19:00~21:00	음악으로 위로한 조선 선비들의 일상 <꿈꾸는 거문고 / 송혜진 저 / 컬처그리파>

<그림의 위로>

차시	일시	주제 <주제도서>
1강	9월 22일(화) 19:00~21:00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는 할링의 시간 <다시, 그림이다 / 마틴 게이퍼드 저 / 디자인하우스>
2강	9월 24일(목) 19:00~21:00	산수화로 떠나는 외유(逍遊)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고연희 저 / 돌베개>
체험	9월 25일(금) 14:00~16:00	팝아트로 표현하는 나

<뮤지컬과 영화의 위로>

차시	일시	주제 <주제도서>
1강	10월 6일(화) 19:00~21:00	나의 쉼터, 상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뮤지컬 <뮤지컬 블라 블라 블라 / 박준규 저 / 숲>
2강	10월 8일(목) 19:00~21:00	위로가 되는 영화, 내 마음 속의 별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 베르텔 바르데조키 저 / 걷는나무>
후속모임	10월 13일(화) 19:00~21:00	나를 위로하는 예술 인문학 총괄

수강신청

구 분	인 원	모집기간
음악의 위로	강연 및 관람	40명 2020. 9. 01(화) 10:00 ~ 마감시
그림의 위로	강연	40명 2020. 9. 15(화) 10:00 ~ 마감시
체험	체험	15명 2020. 9. 15(화) 10:30 ~ 마감시
뮤지컬과 영화의 위로	강연 및 후속모임	40명 2020. 9. 29(화) 10:00 ~ 마감시

* 체험강좌는 '그림의 위로' 강연 2회 수강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삶을 바꾸는 암’, 지혜와 함께 2020 도서관 지혜학교 지혜학교

도서관으로 온 대학!!

구미도서관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에서 역사와 만나요~

'도서관 지혜학교'는 인문학의 지혜를 갈망하는 신중년 세대가 대학의 인문학 전공 주임교수와 도서관에서 12주 동안 함께하는 인문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 2020. 9. 9 ~ 12. 3 매주 수·목 10:00 ~ 13:00

대상 40세 이상 성인 (강좌 당 16명)

운영강좌 문화재로 보는 우리 역사 (정성권 : 단국대 사학과)
- 유적과 유물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역사
제국의 역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최소영 : 서울대 동양사학과)
- 몽골 세계 제국을 이룬 다양한 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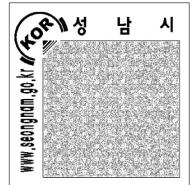
운영방법 비대면 온라인강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강좌로 운영됩니다.

접수기간 2020. 8. 26 (수) 10:00 ~ 9. 1(화)

접수방법 구미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선착순 접수)

문의처 구미도서관 자료정보팀 (☎ 729-469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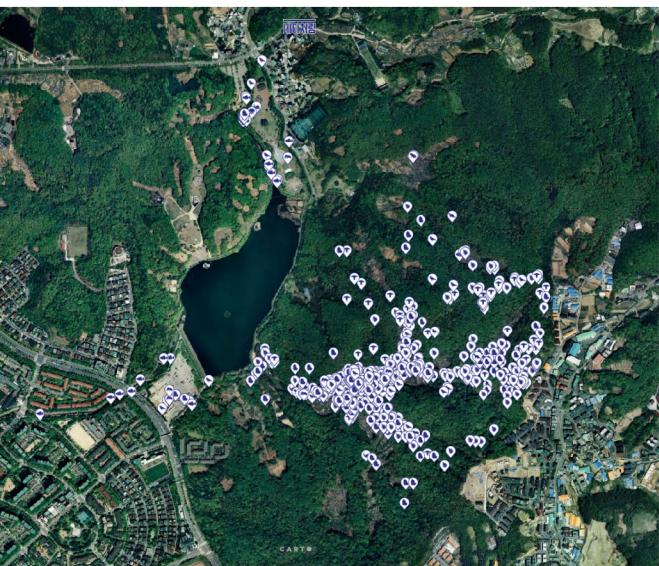


성남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체험하고

최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2020 성남 청계산 바이오블리츠(Bioblitz)

9월 9~12일, 올해는 전문가 탐사대만 꾸려



2019년 율동공원 바이오블리츠 생물종 확인(네이처링 미션)

2020 성남 바이오블리츠가 청계산에서 진행된다. 2017년 금토산(715종 발견), 2018년 남한산성(828종 발견), 2019년 율동공원(828종 발견)에 이어 올해는 9월 9~12일 4일간 청계산에서 식물, 곤충, 버섯, 양

서·파충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 대상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일반인 탐사대는 운영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전문가 탐사대만 구성해 성남시의 생태축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청계산 일대의 생물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 탐사대가 조사한 생물종은 위치정보와 함께 등록돼 2020년 9월 9일 이후부터 네이처링(생물종 등록 어플)의 '2020 성남 청계산 바이오블리츠' 미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사 결과는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바이오블리츠** 시민들이 생물분류군별 전문가와 함께 일정 시간·공간의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는 시민 과학 참여 프로그램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031-729-3152
에코성남 홈페이지 eco.seongnam.go.kr

9월부터 유아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저류지가 뭐예요? 물 속에는 누가 살아요?”



태평습지생태원, 수내습지생태원, 판교 숯내저류지, 여수동 섬말저류지에서 9월 21일부터 11월 27일(오전 10시~11시 40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개 원 최대 21명으로 총 232회 진행한다.

유아들은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과 습지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만나며 자연과 친숙해지고 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체험 신청은 에코성남 홈페이지에서 8월 10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환경정책과 031-729-3152, [에코성남](http://eco.seongnam.go.kr) eco.seongnam.go.kr

*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운영하고 코로나19 경보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지원

분당구보건소, 보건복지부 공모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선정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선정돼 7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 무료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분당구에 주소를 둔 임산부나 출산가정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031-729-3649)로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우울·불안 등 건강위험요인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출산가정은 간호사가 8주 이내에 1회 방문한다.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건강 상태와 신생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살피고 모유 수유, 아기 달래기, 재우기 등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우울감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정은 임신 20주 차부터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5회 이상 지속 방문해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일회용 글러브 착용 등을 준수해 방문 서비스를 하며, 대상자가 원하면 전화나 화상 앱을 통해 상담한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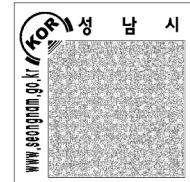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체크카드처럼 쓴다

市·조폐공사 협약...

9월 중 카드형 상품권 발행 예정

성남시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의 결제 기능을 보강한 카드형 상품권을 9월 중 발행한다. 시는 8월 7일 성남시와 한국조폐공사가 '카드형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일반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다.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플랫폼인 '착(Chak)' 앱을 통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발급·충전하면 카드사와 연동되는 방식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한 금액만큼 지역 내 카드 가맹점(4만5천 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의 결제방식인 가맹점 QR코드 스캔, 물건값 입력, 간편비밀번호(PIN)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카드형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 본격 유통되면 QR코드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지류형 상품권 선호도가 낮은 청년층을 흡수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가맹점 1만3,116곳), 체크카드(4만5천 곳), 모바일(1만3,836곳) 등 3개 종류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중심 책자 발간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할 수 있는 부모형 자가점검표도 있다. 평가 후 결과에 따른 교육자료를 제시해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재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책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 배포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아동 카테고리, **상단 QR 코드**)에서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판교다함께돌봄센터 최소영 센터장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이에 맞춰 1·2·3단계별 감정코칭기술, 부모 성향에 따른 솔루션, 아이 성향에 따른 개입방법까지 제시돼 교육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책자를 접한 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상황과 대화법이 자세히 나와있어 보통 시중의 육아서보다 활용도가 한결 좋습니다. 자가점검표 점수에 적합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도 소개돼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학부모 이**, 장**)

“진짜 의외의 항목들에 놀랐어요. 한 숟갈 더 먹자, 8시에 자야 한다 등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 빨리빨리 하자고 말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반성했어요. 앞으로 아이의 인권을 더욱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 김**, 진**)

성남시는 올해 10월부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직접 실시하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위험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찰하며 예방하고, 아동친화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벼려두거나(유기와 방임), 폭력(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예쁜 아이 때 하나 더 치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는 훈육 차원에서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인식도 많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학대발생장소의 79%가 가정 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통계자료’).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의 미흡’과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다른 시보다 먼저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중심 책자를 제작했다.

가정에서는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동학대임을 알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들이 아동권리 존중, 아동학대 관련 인식도와 실천력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



판교다함께돌봄센터에서 자가점검표를 풀어보는 학부모들

아동친화도시 성남 ②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 친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비준됐으며 196개국(온전히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 인권 논의의 역사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동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돼 온 아동 권리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국제사회적 약속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협약 보완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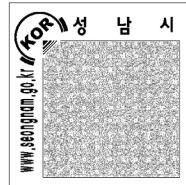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어려움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무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로 누려야 한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심장을 살리는 성남시의료원 **심혈관센터**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 01 심혈관 조영술 시술 장면
- 02 심혈관센터 입구
- 03 송봉근 센터장과 진료 중인 김00 씨



성남시의료원의 심혈관센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 진료뿐만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부정맥, 실신 및 심정지, 대동맥과 말초혈관 질환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센터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김00 씨는 1인 가구 66세 일용직 근로자다. 모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숨이 차면서 가슴이 답답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다. ‘일을 안 하고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 집에 왔지만 누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 보험 자격상실이 된 그는 쉽게 병원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순간, 병원을 찾아 나서는데 성남시의료원이 불현듯 떠올랐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 찾아간 성남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양쪽 폐에 가득 찬 물부터 뺐았다. 그리고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 시각, 응급상황에서 시술을 받은 김 씨가 사망할 수도 있어 의료원 내 김민선 사회복지사는 김 씨의 가족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김 씨는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다. 생명을 다시 찾은 기쁨도 잠시, 의료 보험이 없어 생긴 고액의 의료비 앞에 그는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거주지 불명과 보험료연체로 자격 상실이 된 그가 의료비를 납부할 방법은 없었다.

약간의 회복 후 사회복지사와 관용차를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소 이전을 하고 연체된 보험료는 분납하기로 해 건강보험부터 취득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국

가 긴급의료비를 지급받았다.

김 씨는 “생명의 은인이 성남시의료원과 송봉근 센터장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김 씨였지만 성남시의료원 의료진 덕분에 생명을 회복했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의 도움으로 의료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7월 13 일 응급실을 찾은 그는 8월 4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심혈관센터를 운영하는 의료진 소개

공공병원의 책임임을 다하는 성남시의료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 씨의 스텐트시술을 맡았던 송봉근 센터장은 “앞으로 상급 대학병원과 동일한 양질의 진료로써 성남 시민의 심장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 심혈관센터를 지휘하는 송봉근 센터장은 2011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 도서관 생의학 데이터베이스 BioMedLit 선정 TOP10논문을 수상했고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미국 인명 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 연속 등재된 실력파 의사다.

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고도로 숙련된 김세훈·성주욱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같이 성남시민의 심장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심혈관센터에서는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24시간 활동 심전도 및 혈압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말초혈관 혈류 검사, 기립경사 검사, 관상동맥 조영 검사 및 경련 유발 검사, 관상동맥 CT 촬영 검사, 심장 MRI 검사, 혈관 내 초음파 검사 (IVUS), 분획 혈류 예비력 (FFR) 검사 등 모든 심장과 연관된 검사가 가능하며, 약물치료와 함께 각종 중재적 시술(전극도자 절제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경피적 대동맥 및 말초혈관 중재술,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술 등)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공의료의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심혈관센터 특장점 5

- ①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우수한 의료진
- ② 최신 심장 혈관 조영술 기기(Siemens사 Artis zee) 및 심장초음파(Philips사 Epic 7, GE사 affinity 5) 기기 보유
- ③ 우수한 의료진 및 설비 대비 저렴한 진료비, 입원비
- ④ 심장 검사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 ⑤ 당일 심장 조영술을 포함한 당일 검사 및 당일 결과 확인 가능



김세훈 전문의

송봉근 센터장

성주욱 전문의



특별기고

<성남>이라는 브랜드

도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뉴욕, 포르투, 암스테르담 등은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이제 막 브랜딩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차별화>라고 하는, 의미 있는 다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차별화의 단서(단어, 이미지, 상징 등)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 브랜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딩이 일반적인 상품·서비스를 넘어 도시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 목적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걸까? 그리고 도시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도시 브랜딩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치를 묻는 질문의 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상품·서비스의 브랜딩이 고객문제에서 출발한다면, 도시 브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브랜딩의 지향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란 당장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마케팅 분야에서 고객문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치 아픈 현안 같은 것이 아니라,



강민호 작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저자

• • •
도시는 참 많은 것들을
의미 있는 연결로 가치 지어질 수 있게
돕는 플랫폼(Platform)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이라는 브랜드는**
저에겐 연결의 의미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갭(Gap)' 혹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현재 상태와 고객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 간의 <거리>와 <차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문제에서 출발하는 브랜딩을 우리는 <고객지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 브랜딩에서는 <시민지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브랜딩을 광고·홍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딩을 광고·홍보라고 오해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도시 브랜딩은 핵심고객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닌 외부인 '모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브랜딩의 목적인 시민지향이 시민편향으로 쉽게 변질되고 만는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시민에 준하는 도시 경험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분당 정자동에 작업실을 차렸고, 매일 동탄에서 탄천을 거쳐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쳐갓집은 해질녘 놀이터에서 만날 수 있는 노을이 인상적인 성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율동공원은 작가를 꿈꾸던 시절, 늘 거절만 당하고 좌절을 반복하던 힘든 날의 버팀목이 되어준 저에겐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여전히 율동공원을 걷습니다.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 경험한 <성남>이라는 브랜드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연결해 주었고, 백수에 가까웠던 청년을 작가의 꿈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탄천은 저의 자전거 출퇴근 길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제 작업실은 저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도시는 참 많은 것들을 의미 있는 연결로 가치 지어질 수 있게 돋는 플랫폼(Platform)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이라는 브랜드는 저에겐 연결의 의미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연결도시, 성남>, 성남이 제공하는 도시경험이 시민지향적 가치들로 다양하게 연결되고 펼쳐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성남시 '무료 와이파이' 공공장소 확대… 335곳 추가

시민 통신비 낮추고 인터넷 접속 편의 높여

100곳 버스정류장과 205대 광역버스, 양지·단대·모란생태공원 등

성남시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매년 확대해 시민의 통신비를 낮추고 인터넷 접속에 관한 편의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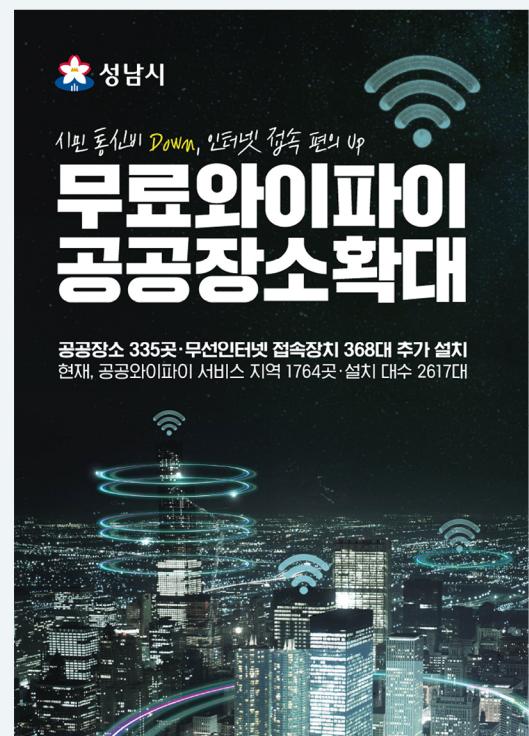
시는 최근 7개월간 335곳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AP) 368대를 추가 설치했다.

100곳 버스정류장과 205대 광역버스, 양지·단대·여수울·섬말·모란생태공원, 수진동과 운중천 반려견 놀이터, 위례 멀티골목, 창곡천, 오리역 광장, 수정·무지개도서관, 신흥1·성남·수내1동 등의 15곳 주민자치센터가 해당한다. 시민들이 설치 요청한 곳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선정해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성남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과 설치 대수는 1,764곳, 2,617대로 늘게 됐다.

시는 2013년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펴 현재 시내버스 839대, 시내·광역버스 정류장 400곳, 공원 81곳, 문화·체육시설 14곳, 탄천 주변 35곳, 전통시장 26곳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설정에서 'G_PublicWiFi@SeongNam'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된다. 성남시는 통신사의 망을 거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AP를 지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성남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 정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와 생활지리포털(테마맵)에 공개한다.

스마트도시과 공공와이파이팀 031-729-8522





양심까지 무심코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8곳에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우리는 자원이 풍족한 시대에 물질의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풍족한 물건들은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풍족한 편리함만큼이나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한 때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시작된 지 25년이 됐다. 쓰레기 종량제가 잘 정착됐다지만 분리수거되지 않고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적지 않다.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지역 8곳에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무단투기가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또 태양 전지판과 야간 조명설비 등을 갖춰 24시간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녹화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를 적극 유치한 금광1동 박준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장은 "금광

1동은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빈집들이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골목이 여러 곳 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다른 길목에도 더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법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 1,198만 원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쓰레기를 가연성과 비가연성, 재활용으로 구분해 잘 버리기만 해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물론 평균 88kg(연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쓰레기를 양심과 함께 아무 곳에 버릴 것인지,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729-3195



805톤

성남시
하루 쓰레기
배출량

숫자로 알아보기

933억

성남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

성남시
2019년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

5,810건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00,000원

생태 이야기

태양의 꽃, 해바라기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해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이다. 약 2000~3000년 전 북미 인디언이 식량작물로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시작한 이후, 콜럼부스에 의해 1510년 스페인으로 건너갔고, 1600년대 후반에 러시아 땅에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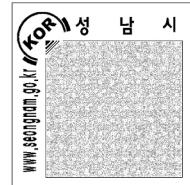
해바라기유는 사순절 금식 기간에도 허용된 몇 안 되는 기름으로 러시아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유이기도 하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해바라기를 들여올 때 공교롭게도 종교적 금식일에 기름기가 있는 식물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해바라기는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지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 덕분에 해바라기 씨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금세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한다. 개화기에 한국에 들어온 해바라기는 번식력이 강해서 각처에서 잘 자란다. 물에 잘 뜨는 소재인 코르크보다 해바라기 줄기가 더 가벼워 물에 더 잘 뜯다는 사실이 발견돼 이 소재를 사용해 구명대와 구명조끼를 만들었다. 1912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서 승객 일부가 살아난 것은 바로 해바라기 덕분이다.

신기하게도 해바라기에는 미학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황금비가 곳곳에 숨어 있다. 해바라기꽃에 박힌 씨앗들은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의 나선이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233개, 다른 방향으로는 144개 씨앗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수의 비가 바로 황금비다. 더구나 황금비를 각도로 변환했을 때의 각인 약 137.5도 역시 해바라기 줄기에 붙은 잎에서 관찰되는데 잎이 황금비의 각도로 가지에서 자랄 경우 어떤 나뭇잎도 일렬로 상대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커다란 한 송이의 꽃으로 알지만 해바라기꽃은 한 송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원판의 가장자리에는 한쪽으로 납작한 혀 모양을 한 꽃(설상화)이 달려 있고, 반쪽으로는 아주 작은 꽃잎이 달린 통꽃(관상화)이 모여 있다. 해바라기꽃은 매우 작은 꽃이 모여 커다란 하나의 꽃차례를 만들고 있다.

한자는 향일화(向日花)라고 불리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이며 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해바라기는 필요한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 얻으려고 녹색 꽂봉오리와 줄기와 잎의 끝부분만 해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꽃이 피면 무겁고 커다란 꽃차례는 대부분 남쪽을 향해 움직이지 못한다. 꽃이 활짝 핀 후에도 줄기와 잎의 끝부분은 계속 해를 향해 동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해바라기꽃이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남쪽을 향하는 해바라기꽃은 낮 동안 해와 마주하고 있으니 따뜻하게 데워져 곤충들이 몰려들게 한다.

만개한 해바라기를 살펴보며, 몸과 마음의 휴식도 얻고 해바라기 꽃 감상에 빠져봐도 좋을 것 같다.



NEWS 01

성남시 초등 5학년생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코로나19 확산방지… 비대면 구강관리

성남시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희망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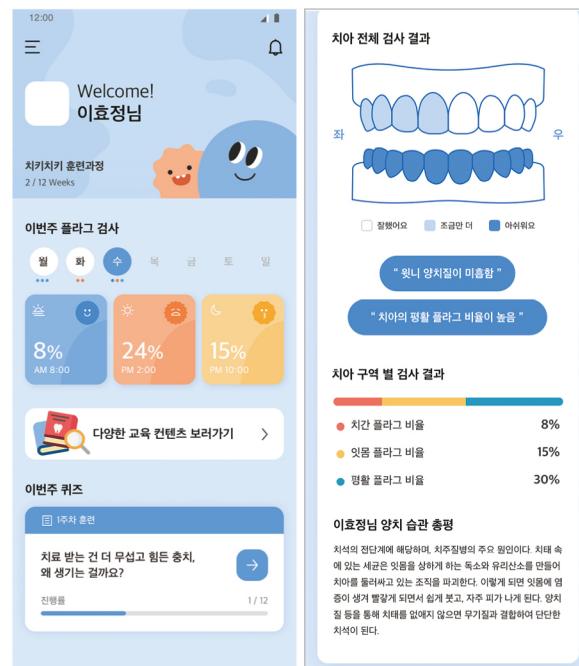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인 72개 초교 4학년(7,835명)과 5학년(7,570명) 중 우선 1개 학년을 비대면 구강 관리로 전환했다.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PC의 ‘덴티아 이’ 앱을 통해 이뤄진다. 구강 검진과 구강 건강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과 카드 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치아를 촬영해 전송하면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러그를 검사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치간, 잇몸 등 치아 구역별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구강 건강과 위생 상태에 관해 치과주치의가 코멘트(의견)를 달고,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을 교육한다. ‘나의 구강 건강 자식 체크’를 활용하면 스스로 구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구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 24~31일 초교 5학년생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칫솔 치약 세트, 구강용 치면 착색제 등을 집으로 택배 발송한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11세와 12세 어린이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부터 대상 학생들이 성남시 협력 치과(치과주치의)에서 불소도포, 파노라마 촬영, 치석 제거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치과주치의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1-729-4046

NEWS 02

성남위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p>공급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 • 추가모집현황 425호 • 입주예정 2021년 1월 • 임대기간 2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p>신청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일(2020. 9. 11)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처리 • 제출처 성남시 종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위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13437) 			
<p>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8. 18) 현재, 청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⑤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⑥-1, ⑥-2, ⑥-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공통사항></p> <p>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출생일 1980. 8. 19~2001. 8. 18)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p>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개별사항></p> <p>⑥-1.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⑥-2.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하는 자(근로자) 신청 가능 ⑥-3.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p> </td> </tr> </table>	<p><공통사항></p> <p>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출생일 1980. 8. 19~2001. 8. 18)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p>	<p><개별사항></p> <p>⑥-1.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⑥-2.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하는 자(근로자) 신청 가능 ⑥-3.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p>	
<p><공통사항></p> <p>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출생일 1980. 8. 19~2001. 8. 18)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p>	<p><개별사항></p> <p>⑥-1.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⑥-2.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하는 자(근로자) 신청 가능 ⑥-3.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p>		
<p>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추천 관련(성남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자격) ⇒ 성남시청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031-729-8913, 8914)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관련(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31-546-6241, 031-204-1070) ⇒ 용인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31-890-7834, 031-270-9769)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시설·공간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보 참조 • 입주대상자 추천 외 일반사항(무주택, 소득, 총자산, 당첨, 계약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콜센터 02-3416-3777, 02-3416-3627, 3677 			

알아두면 좋아요

‘공직자 비리’ 안심하고 익명신고 하세요

성남시는 공직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익명신고 창구인 ‘헬프라인(help line)’을 운영 중이다. 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감사관 청렴정책팀 031-729-2662

한방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건강보험 적용 자부담)를 병행, 자궁 내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을 돋는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의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여성으로 양방 검사상 기질적 질환이 없어야 한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진단서·주민등록등본·지원신청서를 준비해 중원구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45, 3902

성남시 1인가구 생활UCC 공모전

“나만 아는 1인가구 생활 꿀팁”

- 공모기간 7. 22(수) ~ 9. 29(화) 18:00
- 응모자격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대표자 포함 4명 이내) 응모가능
- 공모분야 영상(형식: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제한없음)
- 공모주제 생활 속 1인가구 정보 및 팁
- 출품수량 1인(팀) 당 2편 이내
- 출품규격 3분 이내, 해상도(1920×1080) 이상, 용량 1GB 이내(파일형식은 MP4, WMV, MOV, AVI 파일 중 1택)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작품스틸컷 등
 - 개인 유튜브 업로드 후 성남시 홈페이지 접수
 -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접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프로젝트 공모

성남시 ‘청년, the 해보다’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8. 12(수) ~ 9. 6(일)
- 지원자격 성남시 거주 또는 활동(재학·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비영리 단체 및 3인 이상 모임
※ 참가자 전원 성남시 거주 또는 활동(재학·재직) 지역 검증
- 공모과제 청년 관련 아이디어나 청년문제를 발굴해 이를 직접 실행하는 프로젝트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lina0927@korea.kr) 접수
- 선발방식 1차 서류심사, 2차 화상 인터뷰심사 (10분 이내)
- 심사기준 활동계획 구체성, 효율성, 계속성, 지역성 및 공익성
- 최종발표 9. 17(목)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지원내용 총 4~6팀, 사업별 150만~200만 원 내외 차등 지원
- 활동기간 2020. 10~12월
- 주최·주관 성남시·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과 청년기획팀 031-729-8751~3



특별기고 | 명품도시 성남시 탄생의 뿌리

49주년(8월 10일) 맞은 광주 대단지 사건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광주대단지사건' 성남의 역사도 50년의 나이테로 자라나서 청소년 세대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를 것이다. 이 사건은 성남시 탄생의 계기가 된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물난리 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시름을 깊게 한다. 당시에는 장마와 폭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온 길을 따라 49년 전의 성남으로 가 본다.

1971년 8월 10일,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생존권을 요구하며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인해 1973년 7월 1일 성남시가 탄생하게 됐다.

성남시가 생기기 전의 이 지역은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다. 성남 원도심 일대는 농지보다 산지가 더 많았다. 남한산성 자락의 한적한 산골마을인 이곳에서 서울시 철거민들이 이주했다. 1968년 서울 시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토지매입가격이 낮은 경기도 광주군에 '광주대단지'를 조성하고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킨다는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다.

이 계획으로 이주민의 생계대책과 비바람을 피할 집도 지어지지 않은 채 즉시 강제 이주를 진행해 인구가 순식간에 14만 명을 넘어서었다. 주민들의 생계대책은 막막했고, 민심은 흉흉하기만 했다. "굶주림 때문에 야기를 삶아 먹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이주민의 생활상은 참혹했고, 실제로 겨울에 천막생활을 하던 일가족이 얼어 죽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다.

당초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 원에 분양해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

토록 했으나, 광주대단지에 토지 투기 붐이 일면서 6,343가구의 전매 입주자가 정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에게 평당 8천~1만6천 원에 이르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했다. 서울시 행정당국은 광주대단지에 주택은 물론 이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선전을 했고, 이 말을 믿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들어온 주민들은 대부분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폭등한 땅값 일시불 납부와 각종 세금부과 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 • •

사건 당시 '난동', '폭동' 등으로 표현됐던 이 사건의 성격 규명을 통한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남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971년 8월 10일 오전 11시 주민과의 면담을 약속한 양택식 서울시장이 주민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격분한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천 원에 매수한 땅 만 원에 폭리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면서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사실상 광주대단지 전역을 장악했다.

이날 시위는 오후 5시경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6시간 만에 막

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됐다.

시위 발생 당일 12시, 새로 발령받은 내무부 소속 부이사관급 직원 등 40여 명이 내무부 청사 대회의실 근처에서 사령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지역개발담당관(이후 새마을담당관)으로 내정된 고건(高建) 훗날 국무총리가 있었다. 광주대단지에서 시위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는 사령장도 받지 못하고 광주대단지사건 수습 업무에 투입됐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도시 정책이 <선(先)입주 후(後)개발>에서 <선개발 후입주>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됐다고 기록했다. 선개발 후입주 정책의 첫 결과가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건설이다. 1기 신도시 건설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 시대에 접어들었다. 명품 신도시 분당 9만7,500호가 탄생 된 역사적 배경이 광주대단지사건에 있고, 이후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위례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는 불과 50여 년 만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변화 발전해 왔다.

내년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주년이 된다. 사건 당시 '난동', '폭동' 등으로 표현됐던 이 사건의 성격 규명을 통한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남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근래에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작품과 문화예술 활동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 1989년 5월 4일 분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1년 12월 26일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6년 7월 21일 위례(당시 송파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68
철거민 집단 이주

1971. 8. 10
광주 대단지 사건

1973. 7. 1
성남시 승격

선입주 후개발

선개발 후입주





인생학교(사진 정동주)

인생 2막의 또 다른 희망 ‘위례 인생학교’

포토에세이, 금융투자,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등 8개 강좌 개설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위례 인생학교’는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를 한 시니어들을 위한 학교다.

지난 8월 5일 개교한 ‘위례 인생학교’(교장 백만기·수정구 창곡동 594번지)는 영국 평생교육기구 U3A(University of the 3rd Age)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백만기 교장은 “나의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식은 나에게 필요하다”는 설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돌아보니 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옆 사람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인생학교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위례 인생학교’는 수업료와 시험이 없는 학교다. 학교 운영을 위해 월 1만 원의 운영회비만 내면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위례스토리박스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는 이번 여름학기는 포토에세이, 금융투자,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독서모임, 영화인문학, 스마트폰 활용, 웨다잉 등 8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학기제(3개 월)로 운영되며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을학기에는 저글링, 문화답사, 미국드라마 등 8개 신규강좌를 포함 총 15개 강좌로 늘어난다. 교실은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정원을 10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월 1만 원의 적은 회비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 교장은 “강사진이 모두 자원봉사자이기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방법도 특별하다. 보통의 강좌들이 강사가 주도하는 일방향 강의 방식이라면 ‘인생학교’는 강사가 이끌어 주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때로는 학생이 강사가 될 수 있는 쌍방향 스터디 강좌로 진행된다.

지난해 퇴직했다는 수강생 박 모 씨는 “인생의 전반부는 강요받은 것이었다면, 퇴직 후 인생 2막에서는 선택하는 것”이라며 “인생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보니,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젊어서부터 악기 하나는 꼭 배우고 싶은 로망이 있었던 60대 수강생은 “악기 구입에 부담이 없어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야 로망을 이룬 것 같아 재미있게 배운다”며 만족해 했다.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다. 내가 가진 재능과 오랜 세월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위례 인생학교’. 전국에 ‘인생학교’ 100개교 개설을 희망한다는 백만기 교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구청, 도서관 등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예산 없이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인생학교가 인생 2막을 맞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례 인생학교 031-759-9404

	수요일(8. 5 개강)	목요일(8. 6 개강)
10:00~11:00	금융투자	영화인문학
11:00~12:00	포토에세이	스마트폰 활용
13:00~14:00	웨다잉	우쿨렐레
14:00~15:00	-	캘리그라피(14:00~15:30)
15:00~16:00	독서모임(8. 12 수요일 1회)	-



수업장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육아멘토 육아멘토링 가정 모집

심리적·환경적 양육부담이 높은 성남시 영유아 가정(한부모·조손·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을 대상으로 보육 전문가가 1:1 육아멘토링을 지원한다. 8~11월 월 2회(회당 1시간 이내)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며 무료다.

문의 031-721-1640(내선 3번)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소식

9월 1일부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 변경돼 적용된다.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시청점·분당구청점·분당판교점은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제로, 금광점·수정점·양지점·위례점·중원점·태평점은 정원수에 따른 상시모집으로 이뤄진다. 부모 2인 모두 회원신청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 가능하다(단, 동일지점 회원신청은 불가하며 연회비는 각각 발생된다). 9월 1일부터 반납일 연체도 적용한다(연체 일수만큼 대여 불가).

- 상시모집 9. 1(화) 09:00 금광점, 수정점, 양지점, 위례점, 중원점, 태평점
- 우선순위 추첨제 9. 25(금) ~ 10. 8(목) 분당판교점

문의 031-721-1640(내선 3번)

방구석 콘서트 – 온라인 공연 ‘깃털피리’



9월 4일(금) 오전 10시~9월 11일(금) 오전 10시 성남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공연시청방법
 -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https://sneducare.or.kr/echild/>) → 커뮤니티 → 교육·행사
 - 유튜브(검색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공연 이용후기 이벤트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이용 후기 및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후기 중 우수 이용후기를 선정해 기프티콘 발송

문의 031-721-1630(내선 4번)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 이용안내

- 전화상담 월~금 13: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031-755-9338
- 사이버상담 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go.kr>) 접속
 - 사업안내 → 가족상담사업 →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등록(상담 진행)
- 내용 부부관계 및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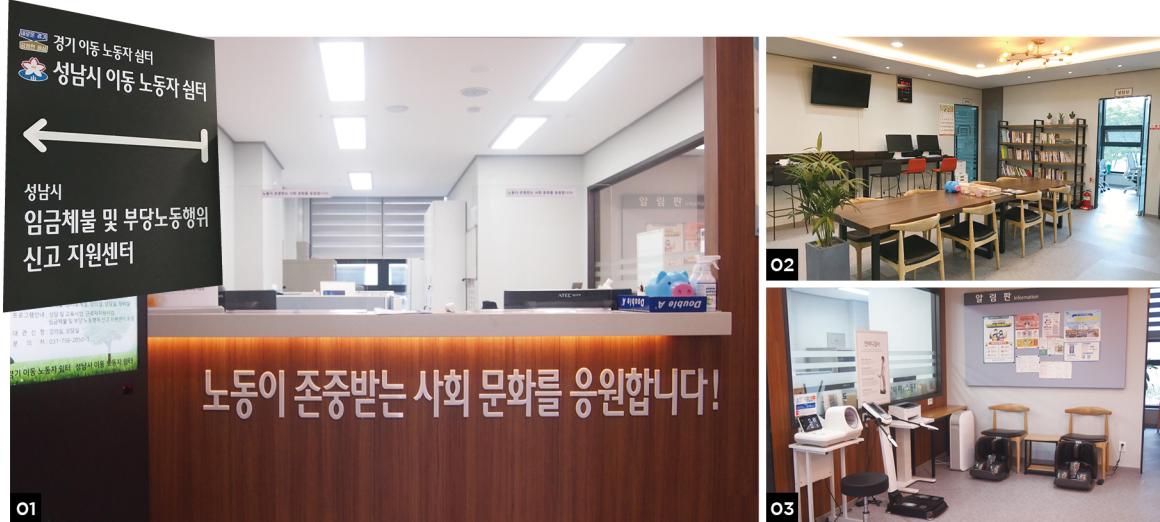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정착 기대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01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 02 휴게홀 03 휴게홀에 마련된 건강기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좋고 말고. 이렇게 배려해줘서 감사하지.”
올해 초 실버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한 정진성(74·은행동) 어르신은 발 마사지기를 이용하면서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은 편의점 의자에서 쉬었는데 한 달 전부터는 이곳에서 쉬거나 대기한다. 안마의자에서 피곤한 몸도 풀고 혈압측정기와 인바디검사기로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어르신이 매일 이용하는 이곳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성남시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 이하 쉼터)다.

‘대리기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들은 마땅한 대기 공간이나 휴식 장소가 거의 없으며, 업무상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어도 도움받기가 쉽지 않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직업안정과 복지증진, 사회적기업 설립, 협동조합 조직을 도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편한 쉼을 위해 남녀 휴게실과 휴게홀에 다양한 건강기기를 마련했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와 사무기기, 서적을 비치하고 간

식을 먹을 수 있는 탕비실에는 커피와 차를 준비했다. 쉼터 회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택배함도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상담사업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행위, 법률·노무 등에 대해 전문상담사,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건강·일자리도 전문보건간호사, 운동처방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카카오톡채널(24시간), 온라인(전화·팩스·홈페이지), 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우선 이동노동자들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경험과 사례 위주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노동법·직종별직무역량강화·성희롱예방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해소를 위해 인문학, 셀프리더십, 주거지원, 취미(건강) 교육도 진행한다.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자조모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강의실과 상담실을 무료로 대관한다.

대리기사 강 모 씨는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정보도 얻고 문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기쁘다. 그동안 노동소외라는 현실에서 이제는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쉼터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일요일·공휴일 휴관)이다. 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KI_Pass)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교육, 대관 등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출입부터 교육과 상담까지 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8월 1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 중단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80번길 3-15, 201호(성남동, 모란드림시티)
031-756-2050~1/ www.sn2050.seongnam.go.kr

탄천초가 분당구보건소를 칭찬합니다!

탄천초에서 날아 온 ‘덕분에 챌린지’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초등학교 교직원들이 분당구보건소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7월 탄천초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교생의 등교가 중단되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분당구보건소는 방역 후 학교에 직접 진단검사장을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대적인 두 차례 검사가 진행됐고, 다행스럽게도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학교는 7월 20일경에야 정상화됐다.
큰 홍역을 치러 낸 탄천초 한만정 교장과 교직원들은 얼마 후 성남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올려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분당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탄천교육가족 모두는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는 “코로나로 큰일을 겪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수많은 전화로 문의와 협의를 했음에도 분당보건소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다”면서 “현신적으로 활동을 해 주신 것에 큰 감동과 도움을 받았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천초 한만정 교장은 “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놀란 아이들을 달래이며 검사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보면서, 차가운 음료수라도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며 “무엇이든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 교직원들과 상의하던 차에 타 지역 교장으로부터 챌린지 릴레이가 와서 동참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은 “올려주신 ‘덕분에 챌린지’로 보건소 직원 모두가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전수조사 당시 탄천초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도 직접 운동장으로 나와 주차 안내와 동선 지도를 해주시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 모두의 노력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감사한 격려에 힘입어 일선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워했다.



‘빅토리 백신’ 캠페인으로 나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성남지역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빅토리백신 캠페인 출범식

“함께하면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구호 ‘빅토리 백신’ 캠페인,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다문화가정 지원 ‘탄천 걷기 축제’,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애 첫 스케이트’ 등은 성남지역 소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진행하는 나눔 사업이다. 국내 사업뿐 아니라 네팔 교육지원, 캄보디아 보건위생사업 등 국제구호개발사업에 힘쓰고 있는 월드휴먼브리지가 올해로 11살이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빅토리 백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일에 앞장섰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상공회의소가 함께한 ‘성남연대 희망캠페인’으로 시작한 나눔 행사는 SNS 챌린지와 모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모두를 위로하는 전국 캠페인으로 번졌다.

처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성남지역 13곳 교회와 협약을 한 것은 4월 9일, 월드휴먼브리지 김진섭 사무총장은 “성남시의 후원으로 ‘빅토리 백신’ 캠페인은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모금된 후원금은 2회에 걸쳐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나눔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해 나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즘 월드휴먼브리지는 성남 야외 무더위쉼터 15곳에 생수 5만 개를 지원했다. 생수는 희망대·위례·화랑 공원·서현·금곡교 등 15개소 야외쉼터에 평일 1,500 개씩 얼려서 비치해 놓는다. 분당차병원과 함께 탈북



민 건강검진(200명)과 대학생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2009년 행정안전부 허가로 설립된 국제구호 NGO로서 전국 17곳 국내지부와 4곳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해외사업으로 캄보디아·네팔·필리핀·볼리비아에서 주민 대상 위생교육으로 생명을 살리는 보건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성남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는 네팔에 교실을 만들고 교육을 지원한다. 캄보디아 농촌지역 낙후된 식수 시설, 화장실 설치, 정수기 보급을 위해 오랜 공직생활의 행정력을 가진 조윤래 실장(전 사무관)이 업무처리, 교육지원 활동을 하다가 귀국했다. 야탑동 사무실에서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월드휴먼브리지 김진섭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 공감을 끌어내는 뜻깊은 일들로 소외된 이웃에게 마음까지 전하는 튼튼한 나눔의 다리가 되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오늘도 나눔의 다리를 놓는다. 캠페인 중인 ‘빅토리 백신’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백신이다.

- 월드휴먼브리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
- 후원 070-4499-7600, www.whb.or.kr



캄보디아 보건위생사업_캄보디아지부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다문화가정 걷기축제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의 상속예금 청구

Q. 얼마 전 A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A, B, C, D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최근 A씨는 아버지의 상속 예금 중 자신의 몫인 4분의 1만큼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으나,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4분의 1만큼의 몫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A의 지급청구를 거절했습니다. C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돼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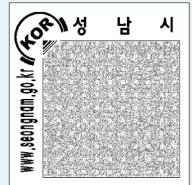
A. 시중 은행들의 내규에 의해 은행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이 있어야 상속예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거나, A씨와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찾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예금을 A씨의 상속분인 4분의 1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해야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예금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에 대부분의 은행이 상속인들 중 한 명의 요구만으로도 상속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 구현 다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8월 10일 제256회 임시회 폐회 후 '제2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기념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원을 비롯해 성남시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윤창근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성남시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준 의장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의정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과 윤창근 의장의 기념사, 성남시장의 축사, 전직 의장들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윤창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의정을 펼쳐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남형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며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침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결의안내역(의결일자 2020.8.10)

의안번호	안건 명	의결내용	비 고
432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24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박광순 의원 등 29명
432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27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선창선 의원 등 14명
4328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0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1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2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3	성남시 다목적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4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3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부결	성남시장
4339	성남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성남시장
4340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4341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원안가결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식' 개최



성남시의회는 8월 6일 '시민의 마음을 얻는 시의회' 구현을 위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끊임없이 '협치'를 강조하는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협치 실현의 첫 행보로 이번 협약식을 마련했다. 이는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윤창근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 미래통합당 이상호 대표의원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경제·심리방역 등과 관련된 정책 및 대안제시 시 양당의 소통·협력 추진 ▲ 공동의 관심 이슈에 대해 교류·협력하는 양당 협치채널 개설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원들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여·야의 대립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익에 부합하기 위한 대립이어야 한다.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중간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고, 시민을 위해 여·야가 상생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미래통합당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시의회 의장단, 경찰서 등 주요기관 방문
(7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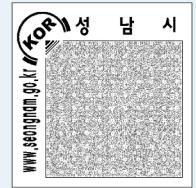
제5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당선증 교부식
(7월 25일)



의원연구단체 - 전통시장 발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회, 연구용역 방향 및 내용 논의(7월 30일)



의원연구단체 - 성남스마트도시4차산업혁명정책 연구회 정담회(8월 6일)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첫 행보…

현장중심 일 잘하는 의회 구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강상태)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성남시체육회와 성남FC를 비롯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유소년축구장, 탄천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중앙도서관, 성남시평생학습관,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수정지역청소년센터, 복정도서관, 청년지원센터, 야탑청소년수련관 등을 방문,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성남FC를 방문한 위원들은 김남일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땀 흘리며 훈련 중인 펜싱·빙상 종목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을 참관해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상태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함으로써 향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첫 행보, '성남문화재단'을 가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는 7월 22일 성남문화재단을 방문,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로부터 주요 현황을 청취한 후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등 성남아트센터 공연장과 전시기획 시설들을 둘러봤다.

성남문화재단은 7월 8일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스토리박스(STORY BOX)' 개관식을 열었다. 위례스토리박스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 한국도시주택공사(LH), 가천대학교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로 건립한 복합문화시설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위례스토리박스의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성남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남용삼 위원장은 “시민들의 다양해진 문화 욕구를 골고루 충족하는 것이 문화도시로서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돗물 유충 불안 해소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7월 22일 시에서 관리하는 복정정수장, 27일에는 성남수질복원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대형폐기물처리장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환경시설들을 방문 점검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침전지, 배수지 등의 수돗물 정수과정과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수처리 공정을 개선해 녹조류 발생 억제 및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쓰레기 소각 및 집하시설인 판교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과 판교크린넷도 방문해 현안사항 등을 점검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민간위탁운영 및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는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선임 위원장은 “시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수공정 시설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시민들이 우리 시의 정수시설 및 정수과정을 신뢰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형 공사 현장 안전점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는 8월 11일 관내 주요 공사현장 5곳을 방문해 지역주민 민원사항과 안

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속되는 폭우 속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제8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첫 현장활동을 펼쳤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금광1 재개발 사업지구 현장, 분당~수서 간 공원화사업 현장, GTX 성남역 건설현장 및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현장 등 관내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사항 및 근로자 안전사고 대비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과 관계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호근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공사현장의 안전은 물론 현장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의정



성남시의회 생명나눔 헌혈운동(8월 7일)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우려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협력해 헌혈행사 개최



성남시의회 미디어소통방 시연회(8월 10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집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제작실 마련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의(8월 12일)



명의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치매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기



박영호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늘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나타나는 질병은 다르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모든 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매(癡呆, dementia)입니다.

치매란 인지 저하가 심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루이소체치매, 정상압수두증 등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치매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지인이 먹고 있는 치매 예방약을 나도 복용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치매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제(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등)를 주변에서 예방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서 뇌 영양제를 처방받으며 이를 치매 예방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뇌 기능과 신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영양제가 이론적으로는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이뤄져 있지만, 실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뇌 MRI 검사를 먼저 받으면 되나요?

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궁금하다며 뇌 MRI부터 활

영하고 싶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 MRI는 뇌 위축, 뇌실 확대, 뇌졸중, 종양 등 치매의 원인 감별에 큰 도움을 주는 검사일 뿐, 치매가 있는지 여부를 뇌 MRI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본인과 주 보호자가 치매 분야 전문의와 면담한 뒤 신경심리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신경심리검사는 기억력, 시공간구성력, 언어능력, 전두엽기능 등 인지기능을 자세히 평가하는 검사로, 이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치매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창궐한 시기에 이러한 분들이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술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님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그림을 따라 그리도록 쟁겨드렸는데, 부모님이 하지 않으려고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위해 수학 문제풀이나 색칠공부 등을 준비해 쟁겨드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혹은 함께 살더라도 직장 등으로 인해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부모님의 경우에 자녀들은 더 많은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들의 노력에 부응해 잘 따라가주는 부모님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더 흔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지 기능에 좋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싫어하면 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억지로 시킬 경우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공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낮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활동량이 적다면, 우선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텁발 가꾸기나 반려동물과 지내기 등 부모님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봐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라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 •

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루이소체치매, 정상압수두증 등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매일 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치매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기억을 비롯한 인지 기능에는 술이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단계에서는 더욱 해롭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잔의 술로 시작했다가 한두 병 이상 마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폭음은 우리의 뇌를 병들게 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은퇴 후 여유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취미나 운동 같은 건강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술을 벗 삼아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성남시민 건강실천 프로젝트 10 ⑥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법과 예방 스트레칭

출처 : 보건복지부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앞쪽의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손이나 손가락에 이상 증상(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이 나타나는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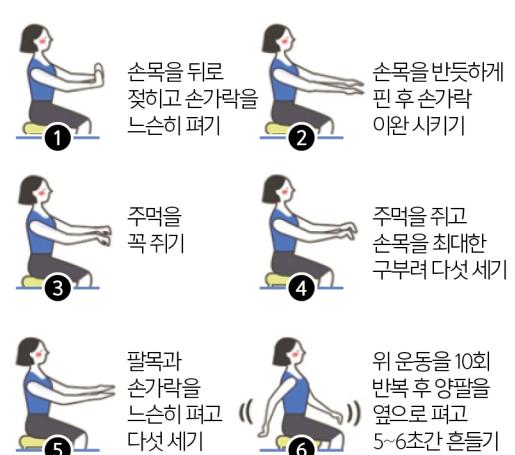
-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반복
 - 손목이 고정된 자세로 컴퓨터 작업 진행
 - 손목을 빠른 속도로 반복 사용 등
- *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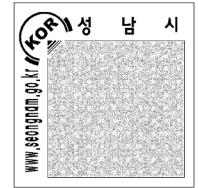
손목터널증후군 자가 진단법

- 손목을 두드렸을 때 저리다
 - 잠을 자다가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어 잠을 깬 적이 있다
 - 근육이 약해져 힘을 주기가 힘들다
 - 팔목 앞 부분이 자주 시큰거린다
 - 양 손등을 서로 맞대고 90도 꺾인 상태에서 1분 정도 지났을 때 손이 저리다
- *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의심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운동법





장서각 산책

조선시대 두창(痘瘡)과 마마신



이옥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1796년 9월 22일에 정조는 옹주[淑善翁主, 1793-1836]가 두창(痘瘡)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며칠 전부터 체한 것 같은 증세로 열이 나던 옹주는 이날 손발에 반점이 돋았다. 정조는 즉시 방외(方外)의 두창 전문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하고, 이문원으로 거쳐를 옮겼다. 같은 달 25일부터 옹주의 볼에 구슬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꽂을 기미가 보였다. 그리고 30일부터 땄지가 떨어지기 시작해 마침내 나았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궁궐 내부에도 두창의 전염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궁궐에 거처하는 왕이나 왕후, 그리고 왕 세자가 두창에 걸렸다가 회복하면 조정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당시 연회의 모습은 「두후평복진하도(痘候平復進賀圖)」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옹주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조가 거행한 ‘두창신(痘瘡神)’을 보내는 의식이다. 이는 무당의 마마 배송굿과 비슷하지만 무당은 보이지 않고, ‘마마신’을 보내는 글[送痘神文]을 지어 간단한 예식과 함께 신을 전송하는 것이다.

정조가 마련한 배송 의식을 살펴보면 먼저 벗짚으로 만든 마마신에게 현주(獻主)와 집사자가 절하고 술을 바친 후 신을 받들고 상마소(上馬所)로 나와 말에 태웠다. 그리고 선독관(宣讀官)이 무릎을 꿇고 송신문(送神文)을 읽은 후 말을 인도해 통화문 밖에 나아가 절을 하고 보냈다. 이날 송신문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 글에서 정조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신도 사랑하였도다”라며 마마가 옹주에게 들어와 두 볼에 반점이 돋고, 구슬 안에 고름이 맺히고 짓무르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리고 뼈를 빚고 악기를 두드리며 술을 권해 보내는 과정을 적은 후 떠나는 신에게 자손의 장수와昌盛(昌盛)을 기원하며 글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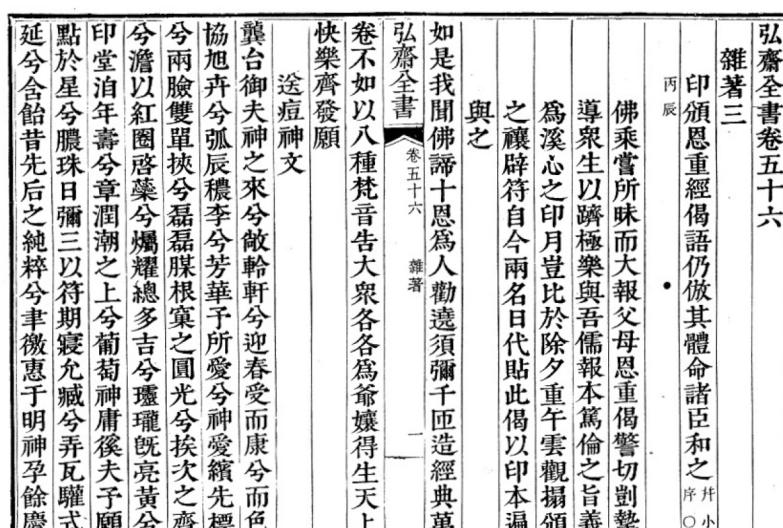
고 했다. 김매순을 비롯한 유자들이 두창을 신으로 인정한 까닭은 그것이 “사람됨(爲人)”의 관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현석은 이를 “옥성지공(玉成之功)”이라 했다. 옥으로 만들어 주는 공로란 말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닥친 질병을 의학적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 속에서 해석한다. 질병에 걸

린 사람뿐 아니라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이 걸렸을 때 가장 단순한 물음, 왜 이런 질병이 ‘하필’ 나에게, 내 가족에게 닥쳤는가에 대한 답을 의학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질병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운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딱딱하게 변한 내 얼굴, 또는 사랑스러운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인(成人)으로 가는 길목이라 인내하며 참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갑게 만나던 지난

날이 유년의 추억처럼 그립다. 이 변화가 실직과 파산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무력감에 빠지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신(神)”을 보낼 그날을 꿈꾸며 그가 나에게 끼친 공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인내할 뿐이다.



『홍재전서』 권56, 「송두신문(送痘神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두창의 마마신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신으로 숭상할 정도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신이었다. 그러나 두창에 대한 반응을 두려움과 회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매순(金邁淳)은 「송두신문(送痘神文)」에서 마마신이 약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유약한 사람을 굳세게 만드는 공로가 있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영화 속 사랑의 돌림노래… 영화 <클래식> & 파헬벨 <카논 D장조>

장밋비가 유난히 지독했던 여름이 끝나간다. 비의 기억을 지닌 계절을 떠나보내며 비와 관련된 명장면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한국의 포크 밴드 ‘자전거 타는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배경으로, 겉옷을 우산 삼아 머리 위로 받쳐 들고 비 오는 대학 캠퍼스를 한한 미소로 함께 뛰어가는 남녀.

풋풋한 사랑의 감정이 한껏 전해지는 이 모습은 영화 <클래식> 속 한 장면으로,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 드라마, 광고, 코미디 등에서 끊임없이 패러디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1990), <엽기적인 그녀>(2001),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2004)를 만든 곽재용 감독의 작품인 <클래식>(2003)은 두 세대에 걸친, 우연인 듯 필연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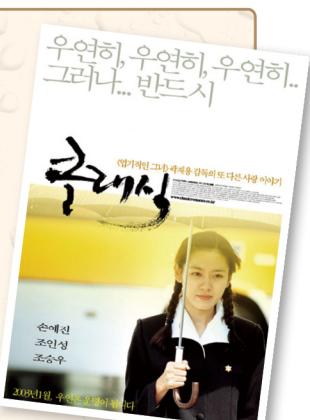
영화에서는 위에 언급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외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김광석), ‘그랬나 봐’(김형중), ‘사랑하면 할수록’(한성민) 등의 가요와 함께 파헬벨의 <카논 D장조>가 영화 삽입곡으로 사용되는데, 영화 시작과 함께 들리는 파헬벨의 <카논 D장조>는 영화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기도 한다.

‘카논 Canon’은 하나의 멜로디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모방하는 것으로, 파헬벨의 <카논>에서는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베이스음 위로 바이올린 멜로디가 다른 두 대의 바이올린에 의해 모방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베이스음과 그 위로 모방과 변화를 지속하며 울리는 바이올린 선율이, 영화 속 엄마 주희(손예진 분)와 준하(조승우 분)의 사랑에서 변주된, 딸 지혜(손예진 분)와 상민(조인성 분)의 사랑과 겹쳐 보이며, 영화가 보여주려는 세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사랑을

파헬벨의 <카논 D장조>가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딸 지혜 나이의 엄마 주희가 요양차 내려간 시골에서 만나게 되는 준하와의 이야기는 황순원의 소설『소나기』를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에서 시작돼, <클래식> 속 주희와 준하를 거쳐, 지혜와 상민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변주를 파헬벨의 <카논 D장조>와 함께 감상해 보기 바란다.

유튜브에 ‘비전성남 영화속클래식 더클래식’을 입력하면 관련 영상과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9~10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금요일 10:00~10:50 11:00~11:5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숲놀이 프로그램 - 9월 우와~ 거미다(거미와 곤충)/ 10월 알콩달콩 멋진 열매 ※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교육 - 9월 바람이 불어라/ 10월 북극곰에게도 냉장고가 필요해?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 참여) - 9월 가을 준비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5:30~16:30	8세 이상 단체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 안전 프로그램 - 9월~10월 커피의 무한변신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생태환경 체험 활동 - 9월 가을에 만나는 숲속 친구들/ 10월 소리로 색으로 맛으로 익어가는 가을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가족 5세 이상 가족 개인 8~10세	직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8~12세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게임과 놀이로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 9월 미세먼지 잡아라/ 10월 지구가 뜨거워져요
하나 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 9월 베드코이/ 10월 오늘의 날씨(온실가스)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자연놀이를 통한 생태적 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 - 9월~10월 나뭇잎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7세 이상 가족	버려지는 물건들의 재활용인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창작물 리폼 및 소품 제작 - 9월 신문지를 이용한 만들기/ 10월 폐현수막을 이용한 만들기
새친구 동고비	토요일 10:00~12:00	7세 이상 가족	계절에 따른 가족탐조 프로그램 - 9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0월 <바람 타고 활활> ※ 가족별 보호자 1인 필수 참석
우리씨앗 나눔행사	9월 13일(일) 10:30~12:00 13:30~15:00 9월 27일(일) 10:30~12:00 13:30~15:00 10월 11일(일) 10:30~12:00 13:30~15:00 10월 25일(일) 10:30~12:00 13:30~15:00	5세 이상 (현장 접수)	씨앗 발아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상추·아욱) 나눔과 상추 모종 심기 체험 씨앗 발아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허브) 나눔과 허브소금 만들기 체험 씨앗 발아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천일홍·바질) 나눔과 찰흙 씨앗 폭탄 만들기 체험 씨앗 발아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얇은뱅이 밀, 흙보리) 나눔과 밀싹 심기 체험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 신청.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판교환경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맹산환경생태학습원 9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9월 곤충들의 이야기
		초등단체	
에코키즈 B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초등가족	
맹산 숲속 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기후변화시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3분기 연필꽂이
		초등가족	
가족 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2차시(7~12월). 24절기를 배우고 절기에 맞는 활동 체험
		초등가족	
절기 따라 생태원 가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초등가족	2차시(7~12월). 24절기를 배우고 절기에 맞는 활동 체험
숲속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5~6세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등극 및 오감 체험놀이 3분기 콩 세 알과 우렁각시
병아리 환경교실	목요일 오전 11시	유아단체 (3~4세)	영유아 단체를 위한 오감 체험 중심의 둘러보기 활동
비대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족	-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다양한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미션과 활동해 보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관람	상시	전체	- 코로나19로 2가족 10명 이내로 입장장을 제한함. - 개구리·나무·곤충 이야기 둘러보기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 단체	도슨트, 환경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상시	전체	- 생태원이야기, 프로그램 등 생태원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_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검색하신 후 구독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관람객은 건물 입장 시 발열체크하고 방문객 일일점검표 작성이나 QR인증(전자출

입명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장을 제한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고지. 프로그램 개설 및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람.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9월 프로그램

성남시(은행)식물원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으로~ 숲으로~	월·수·금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식물원 탐방·관찰·놀이로 진행하는 식물원 기본프로그램
곤충 나라 새(鳥) 나라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중등부	새와 곤충의 먹이파이리마드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 누리과정과 초등부 교과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고고~ 튼튼 숲 놀이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유아 숲 놀이와 숲 체육 놀이를 계절별에 맞게 월별 다른 구성으로 진행하는 바깥 놀이 프로그램
곱게 곱게 숲 리듬 놀이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신체발달 단계에 맞게 자연 놀이와 숲 치유, 원예치료 접목
누구나 숲 치유 & 원예치료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청소년 ~ 성인	청소년 이상 성인프로그램. 도시 숲에서 치유와 원예체험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흙산 놀이터 (흙 놀이 체험)	격주 토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이상 가족	일정한 공간에 조성된 황토를 이용해 흙 놀이·그림·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단체는 연초 신청 6회차 운영, 주말 가족은 홈페이지 신청으로 교육 가능
뚝뚝뚝뚝 공작 교실	월1회 토요일 오전	가족	식물원 탐방과 자연의 부산물을 활용해 자연물 만들기와 공작을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
식물원 두드림 (DO DREAM)	주1회 월요일 오후	청소년 단체	자유학기제, 중·고 CA활동을 위한 청소년 목재체험. 버닝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활동(중·고등 단체)
우드버닝에 빠지다	격주 토요일 1·3주 오후	초등 고학년 이상	목재에 버닝기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목공예프로그램(주말)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수.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 세부일정 : 성남시(은행)식물원(www.epark.seongnam.go.kr)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9, 녹지과 031-729-4312



곤충 나라 새(鳥) 나라

곱게 곱게 숲 리듬 놀이

흙산 놀이터

뚝뚝뚝뚝 공작 교실

우드버닝에 빠지다

성남시 목공체험장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체험비	내용
월넛 도마	09:00~12:00 14:00~17:00	중등부 이상	18,000원	월넛(호두나무)을 이용한 짙은 색상의 도마
			23,000원	천연 향균 성분이 뛰어난 캄포나무로 만든 도마
좌탁	주중·주말 (3시간)	성인 대상	19,000원	작사각형의 테이블로 다리는 고정식 좌식테이블
			11,000원	발 받침대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이 가능한 나무 받침판
발판 (디딤판)	14:00~17:00	초등부 이상	6,000원	책 또는 태블릿PC를 거치할 수 있는 디딤판
			19,000원	화분 받침대 또는 2단 계단용 목공예품
스텝스툴		성인 대상		
애완동물 밥그릇 거치대	09:00~12:00 14:00~17:00	중등부 이상	6,000원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위한 애완동물 밥그릇 거치대(직접 애완동물의 키에 맞출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진행하며 주중은 오후만 진행합니다.

* 체험비(재료비+체험료)는 홈페이지 접수 시 결제 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성남시(은행)식물원 www.epark.seongnam.go.kr → 목공
체험장 예약신청 → 교육프로그램 선택 → 날짜 클릭 → 예약하기

성남시(은행)식물원 031-729-4319, 녹지과 031-729-4312



정부정책자금 미소금융 대출

- **금액** 최대 2천만 원 이내
- **금리** 연 3.5%(4개월 성실상환 시)
- **대상** 개인사업자(용달, 화물, 택배, 개인택시, 학원, 미용실 등)
- **자격**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수령자
- **장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503호(야탑동, 분당BYC빌딩)

미소금융 경기성남법인 031-721-2103~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 관내 기업
 - *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청기간** 2020년 7~12월
-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방법** 강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721-1323) 또는 이메일(huil2007@hanmail.net), 센터 홈페이지(www.ilovehappy.org) 접수

해피유아립생활센터 사업지원팀 031-723-8253(조진수 사원)

제20회 송산백일장 개최

-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1351~1425) 선생 추모
- **일시** 9. 5(토) 오전 10시(당일 백일장 제목 발표)
- **장소** 성남시청 내 너른못 분수대 광장
- **분야** 초·중학생부, 일반부(산문·운문)

성남문화원 031-756-1082

* 코로나19로 취소·변경될 수 있음.

2020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 수강 안내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노동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교육대상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성남시민
교육방법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교육내용	<p>교육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대상 교육(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수당, 4대보험 등) • 소규모사업장 대상 교육(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청소년(아르바이트) 대상 교육(일하기 전, 일하는 중, 그만둘 때 알아야 할 권리) • 이동노동자 대상 교육(근로준기법상 근로자성 문제, 산재보상 범위)
수강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일자리 내 '노동권익지원' 내 강의 수강

제2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추모
- **일시** 9. 19(토) 오전 10시(당일 백일장 제목 발표)
- **장소** 성남시청 내 '성남 여수지구 시청공원'
- **분야** 초·중·고 학생, 일반부(산문·운문)

성남문화원 031-756-1082

* 코로나19로 취소·변경될 수 있음.

2020년 아동·청소년 온라인 중독예방교육

- **교육주제** 알코올·약물·인터넷 중독예방교육
-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ZOOM)을 이용한 중독예방교육 진행 (1회 / 40~50분)
- **교육기간** 2020년 8~11월
- **교육장소**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온라인 강의실, 교육 신청기관 온라인 강의실(교실에서 오프라인 진행 가능), 교육장소는 교육 신청기관과 협의 후 확정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31-751-2768~9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대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483~9,89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 **내용**

시간제 돌봄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쟁쟁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돌봄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수족구병, 독감, 눈병, 구내염 등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새롱이새남이집 입소 안내

-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2년(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031-755-5453

홈페이지 www.sshouse.or.kr

카카오톡 채널 '새롱이새남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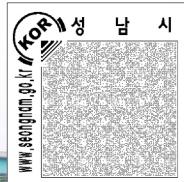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연중	온라인	청년 (만 19~34세)	성남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www.snspring.or.kr) - 센터 소개, 프로그램, 청년info, 센터소식, 멤버십	홈페이지 접수 www.snspring.or.kr	070-4908-2090~3
	청년 진로 취·창업 멘토링	9. 15(화) 13:00~16:00	온라인 (오프라인 전환 가능)	청년 (만 19~34세)	- 자기소개서/면접/창업사례 특강 - 진로탐색(15명) : 가치관과 강점, MBTI		
수정 청소년수련관	환경도 지키고 운동도 즐기는 '에코 플로깅'	9~12월	성남시 일대	관내 청소년 (9~24세)	- 청소년 주도적 비대면 환경보호 활동 - 에코플로깅 단계별 퀘스트(환경보호활동) 인증 통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유선문의 이메일 접수	031-729-9234
증원 청소년수련관	썸썸스페이스 참가자 모집	9. 1(화) ~ 9. 11(금)	수련관 및 온라인	청소년 및 청년	- 수련관 내 공간·기자재 활용한 청소년·청년 창업 프로젝트 - 예비창업 : 편집 스튜디오, 공방, 목공방을 활용한 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비 200만 원 지원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문의	031-729-9333, 031-729-9337
분당 서현 청소년수련관	제11회 성남시 청소년 온라인 창의과학축제	9. 26(토) 13:00~15:00	온라인 (재단 유튜브 채널)	청소년·시민 1만 명	- 부제 "로그인하는 순간 과학이 보인다" - 개막식, 과학특강, 과학실험·체험활동, 오픈채팅, 온라인게임대회(게임 속 과학), 과학체험부스(30개) 등	유선문의 (부스 참가자 모집) 9. 7 ~ 9. 20	031-729-9451
분당 정자 청소년수련관	2020 청소년 어울림마당	9. 5(토)	수련관 및 온라인 (유튜브, zoom)	청소년, 지역주민	- 청소년동아리 공연활동(사전녹화)과 동아리 지원사업 체험부스활동(온라인 줌을 활용한 부스체험)을 저대~연령으로 진행 - 본행사 : 14:00~16:00	-	031-729-9533
	성남교육 영화제 영상공모전	9. 6(일)까지 공모	수련관	전 국민	-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열리는 본 영화제는 공모와 초청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국내 최초 교육영화제 - 새로운 시민의 영화를 찾는 '성남교육영화제 2020' - 12월 10~12일 상영회 진행	유선문의	031-729-9532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토·마·토 생활과 함께하는 힐링로드	9~11월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금토산)	아동·청소년·성인(여)	전문상담사와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정감을 회복하는 본격 심신힐링 프로그램	전화 상담 및 예약 접수	전략사업팀 031-729-9655
분당 야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9~10월	수련관	초등 4~5 청소년(40명)	- 과학탐구형 프로젝트(SI-PBL) 활동 중점운영 - 동아리활동(진로, 체육, 문화예술 등)	홈페이지 참조	031-729-9830
양지동청소년 문화의집	Z세대의 문화를 즐긴다! '내 꿈은 찐투바'	9. 26(토) 13:00	온라인 (재단 유튜브 채널)	성남시민 누구나	- 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뷰티, 게임, 쿡방, 스포츠 등의 청소년 맞춤형 기획영상 업로드 - 유명 유튜버와의 온라인 소통	-	031-729-9955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접수	연중	센터	성남시 관내 청소년	- 생활·건강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이내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교복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2% 이내 - 1개의 항목 기본, 최대 2개 항목 지원 신청 가능 -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열린마당→자료실	유선문의 후 공문접수	031-729-9116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휴관이 연장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http://www.snyouth.or.kr)



여수천에서 섬말공원까지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8단지 근처 여수보도 2교에서 여수천으로 내려갔다. 여수천은 며칠째 내리는 비로 물이 많이 불어 있다. 여수천으로 내려서자마자 만난 용버들 가지의 곱슬거리는 모양이 물소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보인다. 비에 젖은 닭의장풀 잎의 색이 선명하다. 여수천을 따라 걷는 동네 한 바퀴,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

코뿔소 돼보기 - 단풍나무 씨앗을 콧등에 올려보세요
개나리, 벚나무의 봄을 지나 이제 눈괴불주머니가 여름을 누리고 단풍나무 열매는 길 떠날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단풍나무 열매는 다 익으면 두 개로 쪼개져 날아간다. 날개 달고 날아가는 씨앗의 도전이 뭉클하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을까. 이질풀, 쥐손이풀, 닭의장풀이 무리 지어 꽃을 피우고 있다. 쥐손이풀의 열매는 꼭 촛대 같아 동화책 속 생쥐들의 식탁을 보는 듯하다.

달맞이꽃이 불 밝히는 밤

여수천변 길은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탄천 본류에 비해 작은 물길이지만 야기자기한 분위기가 다정한 느낌을 준다. 해가 지고 나면 달맞이꽃이 불을 밝힌다. 줄지어 피어 있는 개망초꽃은 가로등 불빛,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효석 작가의 표현처럼 달빛 아래 소금을 뿐려 놓은 듯하다. 여수천 양쪽에서 하천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가 여수천2교부터는 도촌동 섬마을 1단지쪽에서만 진입 가능하다.

연과 수련, 구철초가 있는 섬말공원

도촌육교 오른쪽은 도촌천이고, 도촌육교는 여수천과 도촌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도촌육교, 여수천1교를 지나면 섬말공원이다. 섬말공원에는 저류지, 소공연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다.

저류지는 장마 때 2만2,296㎡가량의 빗물받이 역할을 해 여수천의 범람을 막는다. 저류지에는 생태연못이 1만 2,245㎡ 규모로 조성돼 있어 연과 수련이 연못을 채우고 있다. 어느 연꽃에 심청이가 앉아있을까. 아직 꽂봉오리인 연꽃이 무얼 담고 있을지 궁금하다. 연못 가운데 있는 정자에 앉으면 저절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가 될 것만 같다. 정자 이름은 하심정(下心亭)。

“길을 걸으며 자연과 가까워집니다. 섬말공원 오른쪽 나지막한 산길은 섬말공원의 매력이죠.” 야탑동 매화마을 양태봉 씨는 여수천부터 섬말공원까지 걷는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산책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렸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면 한 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도 되지만 섬말공원 끝 차도를 따라 신호등을 건너 후 도촌중학교를 끼고 돌면 다시 도촌육교와 여수천 길을 만나 출발지인 여수보도 2교로 돌아올 수 있다.



단풍나무 열매



방울실잠자리



쥐손이풀



증탑교

벌말교

반기운 사람 만나면 양쪽 길을 오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여수천과 도촌천의 갈림길



섬말공원



집산정

여수천1교

도촌천

도촌육교

여수천2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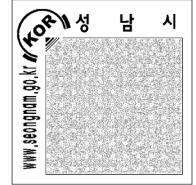
섬서구메뚜기



누리장나무



눈괴불주머니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옥수수 나눔 유감

김동규 분당구 정자동

지루한 장마 속 7월의 셋째 토요일(7.25), 일기예보는 비 개고 흐림이다. 기상과 동시에 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영장산 자락에 오늘은 쉬겠다는 듯 앉아 있는 뭉게구름은 아침햇살에 너무 곱다. 장맛비 개인 아침 풍경이 유달리 아름답게 느껴진 주말 아침이다.

오늘은 성남시 도시농업전문가협의회 회원들이 공동텃밭에서 맛있는 찰옥수수를 수확, 기부하는 나눔행사 날이다. 청계산 자락 판교의 금토천(金土川) 맑은 물이 흐르는 금토동, 큰 텃밭에 신록의 5월에 고구마와 옥수수 모종을 심어 가꿔 왔는데 옥수수 수확을 위해 이른 아침 10여 명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정각 8시부터 작업 시작, 복지관에 기부하고도 남을 만하겠지! 옥수수 수확량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여러 겹의 부드러운 껌질로 꽁꽁 싸맨 옥수수를 따낼 때 그 희열, 즐겁기만 하다.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옥수수를 바로 짜서 맛볼 기대에 척척 손발이 잘도 맞는다.

키 큰 옥수수 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수염이 반 정도 갈색으로 마른 옥수수를 뚝 꺾어 일단 걸껍질만 떼어내고 큰 바구니에 담는다. 이어서 옥수수 대를 꺾어 걷어내니 담장을 허문 듯 차폐돼 잘 보이지 않던 널따란 고구마밭이 펼쳐 진다. 한쪽에선 복지관에 기부할 토실한 것으로 골라 다듬어 푸른 망에 정성 들여 담느라 열중이다.

3시간여 작업이 끝날 때쯤 복지관 측에서 나눔 약속된 옥수수를 인수하러 왔다. 굵고 토실한 것으로 골라 정성스럽게 준비는 했는데 겨우 10망(1망 20개)으로 너무 약소하다. 옥수수 대는 풍성해 보였지만 기상 탓으로 토실하지 못한 게 많아 수확량이 기대 이하였다. 농사는 참 쉬운 듯하면서도 뜻대로 되질 않는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텃밭 메인 작물 고구마가 있다. 경작 면적도 크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걷이 때는 못다한 옥수수 나눔을 사랑 담은 고구마 나눔으로 바치리.

미스터 슈퍼맨

서현수 중원구 은행동

성남에 자리를 잡고 세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도 아빠란 역할은 아직 서툴다. 부쩍 커버린 두 아이와 이제 갓 두 돌 지난 막내를 뒤로 하고 출근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빠가 들어갈 수 없는 자신들의 공간을 가진다.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도 피곤함을 핑계 삼아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그에 반해 TV 속 뜬 남성들은 한 치의 오점은커녕 능력자에 잘 생기고 유머러스하다. 게다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어디 그뿐인가? 결혼 후에도 정말 다정 다감하고, 취미활동으로 사진이나 여행 등등 온갖 고상한 활동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 행간다. 그리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 멋진 아빠로 변신하고 때론 전문 셰프급 요리를 척척 해낸다.

‘이게 인간인가?’ TV 속 설정이다, 촬영 때만 잠시 그럴 것이라 여겨보지만, 거의 슈퍼맨급이다. 그런데 그렇게 돼보고 싶기도 한다.

재미로 봤던 동영상 속 백 선생의 메뉴를 따라해 본다. 내 평생 파를 썰어본 기억도 없다. 하지만 이젠 모든 요리의 기본이 파기 때문이다. 맛이 부족할 땐 백설탕을 과감히 넣는다. 이제는 아빠의 요리가 맛있다고 한다. 떡꼬치는 학교 앞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매주 일요일 떡꼬치는 아이들 간식의 단골 메뉴가 됐다. 비밀이지만 아빠표 김치찌개 맛의 핵심은 솔맛이 아닌 고향의 맛기루란 걸 아직은 모르는 것 같다. 때론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아이들의 흔적을 느껴본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놀았는지….

아빠에게 자기들의 하루를 더 많이 들려주려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 가족 모습을 그린 그림이 어색하거나 가식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 슈퍼맨이 별거겠는가?’ 이런 모습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영화 속 근육질의 슈퍼맨이 아닌, D라인 흰색 러닝셔츠의 아빠도 집에서는 얼마든지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슈퍼맨을 들켜선 안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슴의 “S”를 셔츠로 가리고 출근한다.

photo

운중천의 해바라기

이상미 분당구 이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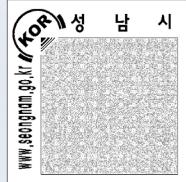
늦여름과 초가을이 만나는 계절. 판교에서 이매동으로 내려오는 길, 운중천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다. 해를 따라 움직이며 해만 바라본다는 꽃이다. 우리의 일상도 햇살 가득 환해지길 바란다.

그네 타는 그녀

오도연 분당구 심평동



아내와 산책 겸 운동하러 자주 나가는 탄천. 최근 운중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매송교 교각이 사계절 벽화로 단장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다. 멋진 그네가 그려져 있는 가을풍경, 아내가 갑자기 그네를 탄다며 벽화 속으로 들어가 포즈를 취한다.



희미해진 풍경

‘석유·얼음, 아이스박스 대여와 얼음 배달’

태평동 현대얼음에서 듣는
얼음에 관한 부자(父子) 이야기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 01 현대얼음을 지키는 아들 정인균 씨와 아버지 정병주 씨
- 02 태평동 소제 현대얼음간판
- 03 여름철 인기 있는 대여 아이스박스
- 04 대장얼음을 절단 중인 정병주 사장
- 05 현대얼음의 옛날 모습



02



03



04



05

아들(정인균·30대)의 어린 날 기억 속엔 이른 새벽 출근을 서두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남아있다. 여름방학 때면 바쁜 아버지를 돋기 위해 가게에 나가 잘라놓은 얼음을 나르고 허드렛일을 도왔다.

새벽 5시에 출근한 아버지(정병주·50대)는 “대장얼음(냉장용)을 싣고 중앙시장 두 바퀴를 돌았어요. 생선가게, 채소가게 등 얼음이 필요한 곳에 배달을 마치고 나면 식용얼음을 싣고 성남 전 지역 한 바퀴를 돌았어요. 새벽에 캠핑을 떠난다는 고객에게 될 수 있으면 덜 녹은 얼음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늦게까지 배달을 했고, 밤 12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호황을 누리던 시절을 회상한다.

지금이야 아이스박스 하나쯤은 집집마다 갖추고 있고 얼음 관련 식품을 취급하는 가게는 제빙기를 구비하고 있어 여름철에도 얼음을 구매하는 일은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 휴가철 휴양지에선 생수 1병에 몇 천 원, 냉장용 얼음 한 조각에 몇 만 원을 호가했다. 여름 한철 사용하자고 아이스박스를 좁은 집안에 비치해 놓는 것보다 대여료 1만 원에 7천 원짜리 얼음을 담아가면 2박 3일 동안 바가지요금을 피해가며 짐통더위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다.

얼음 가게의 시작은

난방용 석유 판매 배달업에서 시작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이다. 연탄보일러에서 발전한 것이 기름보일러였다. 당시는 난방용 기름(석유) 배달업 또한 호황을 누리던 때였지만 계절을 타는 업종으로 겨울 한철 장사가 끝이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을

까. 겨울의 반대편에 있는 여름철 장사를 위해 가게 한편에 대형 냉동고를 들이고 얼음 배달업을 시작했다. ‘석유·얼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품목이 가게 간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현재의 간판에선 ‘석유’란 단어는 사라지고 ‘얼음’ 또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한철 벌어서 일 년을 살았어요”

“오토바이 짐칸에 겨울에는 석유통을, 여름엔 얼음을 싣고 달렸죠. 얼음 장사를 돋겼다면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 손을 보탰고, 자정을 훌쩍 넘겨야 일을 마칠 수 있을 만큼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어요”라고. “그날의 수입은 피로회복제였으며 재미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석유 배달이 사라진 후 얼음 한철 장사로 일 년을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얼음 장사가 안 돼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틈틈이 아들을 돋고 있으면 뿐”이라고 아버지는 말한다.

“문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돋던 아들은 자연스럽게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단체활동 자체, 야외행사 전면취소, 버스정류장 더위 방지용 얼음 설치 취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루하게 이어진 장마까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가철 반짝 누려야 할 호황을 불황으로 넘겨가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그러니 개인적인 욕심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배달될 얼음을 미리 준비하는 부자, 자로 잰 듯 네모반듯하게 잘리는 얼음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아버지의 내공이 느껴진다.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